

### 소망의 언덕



최정원 목사  
광주소망교회 담임

정호승 시인이 쓴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함경북도 종성 고향 땅을 떠나 평생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다 가신 시인 김규동 선생은 1.4후퇴 때 서울 흑석동 산책대기 관자집에 살고 있다가 피난길에 나섰는데 그때 책을 지고 나왔다. 토스토예프스키의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비롯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등 수많은 책과 성경 한 권. 선생은 전쟁통에도 적지 않은 책 가운데서 이것만은 어디로 가더라도 짊어지고 가고 싶었다. 아내가 독에 물어두고 가면 어떨겠느냐고 했으나 그는 설레설레 고개를 젓고 두루 필요한 책 약 100권을 묶어 큰 보따리 풀을 만들었다. 다행히 지게꾼을 만나 노랑진 역까지 가져갈 수 있었고 노랑진 역에서는 인연 부두까지... 고생 끝에 부산에 닿을 수 있었고, 부산에서 3년 동안 피난살이 하는 동안 아저씨가 저 다 준 책들을 정신 차려 읽었다. 책을 들 때마다 40대 중반, 햇볕에 검게 탄 지게꾼 아저씨의 초상이 떠올

다는 것이다. 즉, 기준이 분명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21:5) 즉 기준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불행임을 보여준다.

기준을 말할 때에 등장하는 신화 속의 한 인물이 있다. 바로 프로크루스테스이다. 그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아티카의 강도다. 그는 아테네 교외에 있는 한 언덕에 집을 짓고 살며 강도짓을 했다. 그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었는데, 지나가는 길손을 초대해 극진히 대접하고 자기 침대에서 자게 했다. 자기 침대에 눕혀서 키가 큰 나그네는 잘라 죽이고, 키가 작은 나그네는 늘여서 죽이곤 했다. 그 침대에는 길이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서 누구도 그 침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누운 사람은 누구나 죽임을 당했다. 그는 임의로 결정한 기준을 가지고 남을 재단하면서도 분명한 기준에 따라라는 명분에 집착했다. 자기와 다른 것은 다 위험한 것이고,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누구나 가슴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하나씩 간직하고 살아간다. 자신이 기준이 돼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한다. 내 생각, 경험, 지식, 판단을 절대화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이의 눈에서 티끌을 빼겠다고 나선다. 세상 어디에도 내 기준에 딱 부합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각자가 임의로 결정한 기준을 가지고 남을 재단하면서도 분명한 기준에 따라라는 명분에 집착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준과 명분을 어디서 찾아

### 기준이 있습니까?

랴. '그래, 그 지게꾼은 톨스토이보다 위대하다'는 감동이 가슴을 치곤 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그 아저씨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고 가슴속에 살아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시인으로서 김규동 선생이 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었다. 6.25 피난 길에 다른 사람들은 우선 굶지 않게 먹고 먹을 것을 챙기는데, 선생은 책 100여 권이나 등에 짊어지고 나섰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선생에게 한 권의 책은 목숨과 맞바꿀 만큼 소중한 것이었다. 그것은 곧 그분의 가치관이고 기준이다. 그 기준이 피난길에서 책 100여 권을 등짐에 지고 싶어 나르느라 무모하기 만큼의 행동을 하게 한 것이다.

기준을 생각 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다. 그는 30일 동안 그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법률에 왕이 도장을 찍어 공포된 것을 '알고도'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참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잘못된 기준은 사람을 죽이지만 믿음으로 시작된 기준은 우리 모두를 살리며 자손 대대로의 간증을 남기는 유산이 된다. 또한 솔로몬을 보자. 솔로몬 성전의 시작과 끝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넷째 해 시브월 여호와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불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칠 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왕상6:37-38)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정확하게 분명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설계도에 따라 지어 완성했

야 하는가. 그렇다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우리의 분명하고 정확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고 명분이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에 합격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파송될 때 꼭 주어지는 몇 가지 도구가 있었다. 첫 번째 것은 마패(馬牌, 말과 역졸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권한)였고, 두 번째 것은 유서(諭書, 암행어사의 신분과 권한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였으며, 세 번째 것은 봉서(封書, 임무, 조사 지역, 점검 대상이 적힌 비밀 지령서)였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유척(鈎尺)이었다. 유척은 낫쇠로 만든 지렛대 세금을 포목이나 곡물로 내던 시대였기에 유척은 포목의 길이를 재고 곡물의 길이와 크기를 재는데 사용 되었다. 이것은 들쭉날쭉한 도량형이 백성을 수탈하기 위해 악용될 여지가 많았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유척은 '나무자'가 아니라 '낫'으로 만들어서 습기나 온도 변화에도 변형이 적었고 고의로 꺾거나 늘리지 못하게 한 국가 공인 표준자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정직함을 짚 수 있는 유척이 있는가? 그렇다. 우리들에게 유척은 바로 성경이다.

길을 지나가다가 숲집에서 내건 작은 배너를 보고 웃으면서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신현화라는 시인이 쓴 "솔타령"이라는 시였다. "남씨야 / 내가 / 아무리 추워보라 / 내가 / 옷시입나 / 솔사막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3:16~17)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회산책



이한규 목사  
들꽃사랑교회 담임  
시인

위에 대해 타협 없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영적 반역'으로 규정한다.

첫째, 무속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국가적 배교다. 성경은 공동체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아닌 신잡한 자에게 묻는 행위를 엄중히 다룬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출애굽기 22:18). 과거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대신 신잡한 여인을 찾았을 때, 그의 왕국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국가의 중대사를 합리적 이성과 기도가 아닌, 무속인의 조언이나 주술적 상징에 의지했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목도하고 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어둠의 세력에 귀를 기울이

며, 종국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영적 간음'에 이르게 한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사례가 보여주듯, 주술에 의존한 끝에는 수치와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셋째, 기복주의라는 우상을 단호하게 타파하고 오직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교회 내에 파고든 기복 신앙은 무속적 가치관이 복음의 탈을 쓴 결과로, 고난을 회피하고 세속적 성공만을 구하는 태도는 성도들을 무속의 길로 내모는 통로가 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출애굽기 20:3)".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복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에 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무속, 국가적 재앙과 영적 파멸의 길

오늘 우리 사회는 첨단 과학의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무속의 어두운 그림자에 깊이 잠겨 있다. 미디어가 무당과 역술을 흥미로운 콘텐츠로 포장해 대중의 영혼을 미혹하는 사이, 거북해야 할 성도들조차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핑계 삼아 점집을 드나들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 10명 중 서너명이점이나 타로 같은 것을 이용한다는 보고는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부부가 후보 시절부터 비상계엄까지 내내 이어진 '무속' 논란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이는 무속이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나 문화 공동체 전체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웅변한다. 성경은 이러한 무속 행

는 것은 국가 전체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는 위험한 배교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를 방치하고 동조하면서 옹호하는 태도는 배교나 다름 없다.

둘째, 무속은 성도의 영혼을 더럽히는 영적 간음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신잡한 자와 박수무당을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9:31)". 집과나 부적, 비과학적인 주술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성도의 영혼은 영적으로 불결해진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찾는 무속은 평안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마비시키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다른 영적 힘을 빌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무당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여야만 한다.

망국적 무속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무속은 전통문화도, 가벼운 호기심의 대상도 아니다. 그것은 영혼을 썩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지름길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부터 이름 없는 성도에 이르기까지, 무속적 혼란주의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거짓 예언과 주술의 미혹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직장인콜링 100일 목상집\_3.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 능력 사회 속의 공동체 의식

우리는 평생직업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가 평생직업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연봉제가 대세인 상황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연봉을 잘 모르기도 한다. 일을 할 때도 팀제가 일반화되고 개인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점점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시대에 '일터 공동체'를 이야기하면 너무나 어색하고 고리타분한 것인가?

다윗이 블레셋 땅 시굴락 성에 머물 때의 일이다. 아말렉 족속의 침입을 받아 가족들이 사로잡혀가고 노략질을 당했다. 다윗은 지체 없이 그들을 추격했다. 그런데 승전하고 돌아올 때 "악한 자와 불량배들"(22절)이라고 표현되는 몇 사람이 불만을 제기한다.

추격전을 벌일 때 피곤하여 함께 추격하지 못하고 머물렀던 200명의 동료들에게는 가족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나누어 주지 말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남아 있던 200명

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줘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피곤해서 가족을 구하는 전투에 참전하지 못한 사람들도 역시 '형제'이고, 수많은 적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전사자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 의식의 근거이다. 다윗의 심정을 한 번 생각해보라. 위기를 극복하고 크게 승리하여 흠뻑 젖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때에 공동체 의식을 그려치려고 했던 그 '트리블 메이커'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23절).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공동체 의식이다. 다윗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마저 마음에 품고 있었다. 우리도 일터에서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자.

>>> 일하는 사람의 기도

능력이 우선시되고 실적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일터이지만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리는 메신저가 되도록 인도해주시어.

본지는 위 글을 저자와의 협의의 거쳐 연재한다. (원문일 목사 저음/도서출판 브니엘)

노블요양병원

밝은마음병원

의료선교병원  
나사렛요양병원

**매일 드리지는 예배와 현대의학이 접목된 나사렛요양병원은 전인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선교병원입니다.**

58228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50  
 직통 : 061)339-9905. FAX 061)334-2345  
 이사장 - 강봉규 목사 tel.010-2604-0560  
 상 담 - 김성기 사무국장(집사) tel.010-7676-6706  
<http://peacemind.co.kr>

**진료 과목**

**뇌출혈, 뇌경색, 치매, 정신건강, 한방치료  
재활치료, 노인만성질환전문**